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1년

대중교통 이용 하루 9천명 늘어

환승율 25%로…내년 재정부담은 늘 듯

광주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1년간 시행한 결과 대중교통 이용자들이 증가했다. 시내버스의 운행적자를 광주시가 보전해주는 대신 시내버스와 지하철, 마을버스 노선을 잘 연계시킨 덕분이다. 하지만 시내버스 이용객이 시행 전보다 줄어든데다, 손익분기점인 48만 명에 크게 못 미치는 하루 평균 42만5천275명에 그쳤다.

광주시는 "지난해 12월21일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한 이후 1년 동안의 이용실태·수입 등을 분석한 결과, 하루 평균 46만4천여 명이었던 시내버스·지하철·마을버스 이용객은 통합 환승 체계 구축 등으로 하루 9천800여 명(2.1%) 이상 늘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또 개편 초기 1~2월 60억원에 달하던 적자폭은 점차 줄어 연간 재정지원액은 총 163억원으로 월 평균 14억원 선까지 줄였다고 덧붙였다.

이는 매년 승용차가 1만5천여 대가량 증가하고 주 5일제 확대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객 감소 등을 감안하면 준공영제가 거의 정착했다는 것을 시사한다.

광주시에 따르면 버스·지하철·마을버스 등의 무료 환승체계 구축으로 환승 비율도 1년 전 17%에서 25%로 8%포인트 높아져 시민부담이 100억원 가량 감소됐다. 버스 1대당 평균 재정 지원액은 1천800만원으로 공영제를 도입한 ▲서울(2천600만원) ▲대전(3천200만원) ▲대구(4천200만원)에 크게 못 미쳤다.

현금인식요금함과 버스운행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시내버스 운송 수입 및 원가의 투명한 관리가 가능해졌다. 버스도착안내시스템 도입과 주요 승강장 안내단말기 설치 등으로 양질의 대중교통서비스 체계도 구축했다.

시는 또 2개월 단위로 안전운행, 운전원 복장 및 태도, 버스 청결도 등 시내버스 친절도를 조사, 서비스의 질을 높였다. 지난 11월 말 현재 광주시에 접수된 승하차 거부·부당요금·도중하차·승강장 통과 등 버스 불편신고 건수는 192건. 준공영제 시행 전인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1건이 줄었다.

하지만 내년에는 지하철 1호선 완전개통과 주 40시간 근무제 전면 확대 등으로 대중교통 이용객은 감소하고, 인건비와 유류비 등 운송원가는 오를 것으로 보여 시의 재정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시 관계자는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목표 연비제 강화, 운송업체의 경영효율화 유도, 버스전용차로 확대, 불법 주정차 단속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승차권 '추억속으로'

광주 내년부터 판매 중지

내년부터 광주 시내버스 승차권이 '추억 속으로' 사라진다. 지난 1974년 처음 사용한 지 33년 만이다.

광주시내버스사업조합은 20일 "교통카드 이용률이 증가함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시내버스 승차권 판매를 중지하고, 현행 승차권은 6월까지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승차권으로 시내버스의 요금을 낸 비율은 지난 10월 말 현재 0.38%로 내년 하반기 0.1%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교통카드 80.32%, 현금 19.3% 등 갈수록 교통카드 사용이 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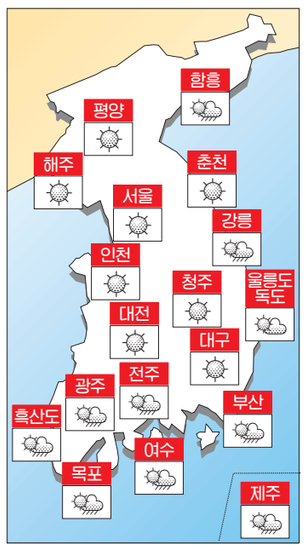
시내버스조합 관계자는 "환승 혜택을 줄 수 없는 등 폐단이 많아 승차권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겨울비

12월 21일 (음 11월 12일) ◇전국날씨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차차 흐려져 오후에 한 두차례 비가 오겠다.

광 주	흐려져 비	2~10℃
목 포	흐려져 비	4~10℃
여 수	흐려져 비	4~10℃
완 도	흐려져 비	3~10℃
구 례	흐려져 비	-1~10℃
해 남	흐려져 비	-1~10℃
장 흥	흐려져 비	-1~10℃
고 흥	흐려져 비	-1~10℃
순 천	흐려져 비	-1~10℃
영 광	흐려져 비	3~10℃
진 도	흐려져 비	3~11℃
전 주	차차 흐려짐	2~11℃
남 원	차차 흐려짐	-1~10℃
흑산도	흐려져 비	7~10℃



서해남부
앞바다=북동~남동풍 파고 0.5~1.5m
먼바다=북동~남동풍 파고 1.0~2.0m
남해서부
앞바다=북동~남동풍 파고 1.0~2.0m
먼바다=북동~남동풍 파고 1.0~2.5m

목 포 밀물〈 11:42 23:38 썰물〈 04:21 17:41
여 수 밀물〈 06:48 18:48 썰물〈 00:02 12:53

▲해뜸 07:37 ▲해짐 17:24 ▲달뜸 14:31 ▲달짐 04:13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22(토)	23(일)	24(월)	24(화)	25(수)	26(목)
날 씨						
최저/최고	6/11	5/8	2/9	2/9	3/10	1/10

로스쿨 현장 실사 돌입

전남대·조선대는 28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선정을 위한 현장 실사가 20일부터 시작됐다.

법학교육위원회는 내년 1월11일까지 교수와 법조인 등 7명으로 구성된 로스쿨 현장실사단을 14차례 파견해 실사를 벌인다고 이날 밝혔다.

현장 실사 첫날 서울 권역은 성균관대와 동국대, 지방 권역은 충북대와 청주대에서 평가가 이뤄진다. 현지조사단 7명이 현장 실사를 벌이고 법학교육위원 3~4명이 참관인으로 동행한다.

현장 실사는 서울 권역은 서울과 경기, 강원지역 순으로 진행되고 지방 권역은 대전과 천안, 익산, 광주, 대구, 진주, 양산, 부산, 제주 등 순이다.

21일 한양대·건국대·충남대·한남대, 22일 국민대·성신여대·선문대·서남대, 26일 서울대와 숭실대, 27일 고려대·경희대·원광대·전북대 등이다.

전남대와 조선대는 오는 28일 중앙대·숙명여대와 함께 실사를 받을 예정이다.

현장 실사단은 교육목표와 과정, 입학전형, 교원, 학생, 학위 과정, 교육시설, 재정 등 분야를 평가하고 강의실, 교원연구실, 모의법정, 법학전문도서관, 세미나실, 기숙사 등을 직접 둘러보게 된다. /연합뉴스

광주 특급호텔 착공 광주 유일의 특1급 호텔이 될 '피스 갤러리' 호텔 착공식이 20일 광주시 서구 마륵동 에벌루션 웨딩홀 옆 공사현장에서 열렸다. 총 사업비 783억원이 투입되는 이 호텔은 1만1천600㎡의 부지에 지하 2층·지상 10층, 200실 규모로 2009년 10월까지 완공된다. 왼쪽 다섯 번째부터 강박원 광주시의장·박광태 광주시장·시행사인 AMJ 임광택 대표·전주언 서구청장 등이 시삽을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행정 착오로 공사 중단 배상해야"

광주지법 민사부

행정 착오로 문화재 주변에 건축허가를 내줬다가 뒤늦게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 자치단체에 대해 공사비 일부를 건축주에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6민사부(부장판사 김병하)는 20일 김모(여·44)씨가 "잘못된 행정처분으로 손해를 입었다"면서 나주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시는 김씨에게 3억6천215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다가구 주택을 지으려 한 토지는 나주읍성과 인접해 건축허가 이전에 문화재청에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역"이라며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나주시의 건축허가는 위법하다"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내년 1월 26일 법학적성 예비시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시험인 법학적성시험(LEET)을 치르기 위한 예비시험이 내년 1월26일 한양공고에서 실시된다.

20일 교육부에 따르면 예비시험 원서 접수 기간은 12월26일~28일이고 접수는 법학적성시험 홈페이지(www.leet.or.kr)를 통해 이뤄진다.

예비시험 응시 자격자는 대학졸업자 또는 2009년 2월까지의 졸업 예정자로서 대학졸업자는 졸업증명서를,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2008년 2월 또는 2009년 2월 졸업예정자는 재학증명서를 스캐닝해 인터넷 접수시 첨부해야 한다.

예비시험 모집인원은 1천 명이며 법학 전공자는 절반인 500명 이하로 제한된다. 응시 인원이 초과할 경우 무작위 추첨하며 응시자의 선정 여부는 법학적성시험 홈페이지에서 내년 1월3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응시료는 무료. 예비시험 성적은 2008년 2월27일 법학적성시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법학적성시험은 언어 이해 영역, 추리논증 영역, 논술 영역으로 구성돼 모두 360분간 치러질 예정이나 예비시험 결과를 반영해 다소 변경될 수 있다. /연합뉴스

음주운전 치사 무조건 징역형

법률 개정안 시행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 교통사고를 내면 벌금형 없이 무조건 징역형으로 처벌받게 된다.

20일 경찰청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 등의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최근 공포돼 시행에 들어갔다.

새 특정범죄가중법에 신설된 '위험운전치사상죄' 조항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나 모터사이클 등을 운전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음주·약물 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는 10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제2종 보통 면허 소지자가 영업용 택시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새 도로교통법개정안도 21일 공포돼 6개월 뒤 시행된다. 현재는 제1종 보통면허가 있어야 택시를 몰 수 있다. 제1종 대형 및 제1종 특수 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은 현행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하향조정된다.

새 도로교통법은 ▲교통단속 장비 기능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속도측정기기 탐지용 장치 등 부착 허용 ▲운전면허 정기적성기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명칭을 도로교통공단으로 변경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연합뉴스

3천만원 익명 기부 사랑의 온도 '쑥쑥'

익명의 남성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3천만원을 기부해 눈길을 끌고 있다.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조건국·이하 공동모금회)는 20일 광주지역 법조계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것만 밝힌 한 남성이 현금 3천만원을 기부했다고 전했다.

익명의 기부자가 놓고 간 현금은 1천만원씩 3개의 묶음으로 나눠져 있었으며 현금을 묶는 띠에 '농협' 로고가 찍혀 있었다.

공동모금회 관계자는 "이 남성이 모금 담당자에게 거듭 익명을 요구해 더 이상 신원을 물어 볼 수 없었다"면서 "익명의 기부자에게 감사하는 뜻에서 꼭 필요한 곳에 따뜻한 마음을 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현재까지 공동모금회에 접수된 모금액은 4억3천800만원으로 '사랑의 온도'는 25도(목표금액 17억2천만원)를 기록했다. /안현주기자 ahj@